

[우리의 미션과 비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준을 받은, 예수회의
보편적 사도적 선택(UAP)

보여주기
함께 걷기
동참하기
그리고 협력하기

이는 전세계 예수회
10년간(2019~2029)의 방향성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예수회대학서강대학교는
네가지방향성을 주요가치로 삼고
예수회교육을 통한가치의실천을 위해
여러분과함께 걸어가겠습니다.



UNIVERSAL APOSTOLIC PREFERENCES

보다 거룩한 봉사와
보편적인 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

U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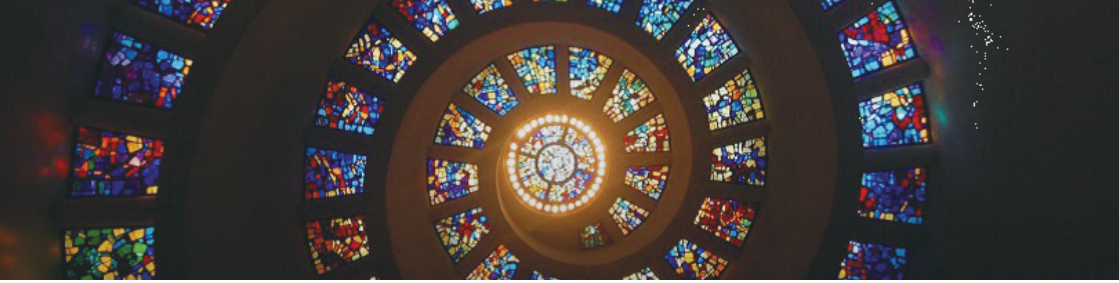
이냐시오 성인의 서거 이후 예수회는 총회 (General Congregation)를 통해 사명을 식별하고 총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2016년 제36차 총회에서 전 세계 66개 관구의 대표가 모여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응답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예수회는 2019년 “보편적 사도적 선택(UAP: Universal Apostolic Preferences)”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적 사도적 선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예수회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방향성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특정 사도직이나 사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우선 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로 제시된 “보편적 사도적 선택”은 예수회가 2년 간의 긴 식별의 과정을 통해 맺은 결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인준 받은 “보편적 사도적 선택”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모든 예수회원과 협력자들이 보다 보편적인 선과 세상을 향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16 - General Congregation 36.

예수회 제36차 총회



첫번째,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 보여주기

첫번째 방향성은,

“영신수련과 식별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신수련과 식별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감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영신수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강요가 아니라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담겨 있는 의미가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식별하며, 선입견과 편견이 견인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회심은, 세상에서 성스러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수회 대학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 제도와 구조를 바라보는 방법, 인류라는 공동체를 인식하는 관점이 바뀌는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체험은 학생들의 생각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소외된 이들과 함께 걷기

두번째 방향성은,

“가난하고 세상에서 쫓겨난 이들, 존엄성에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걷기”입니다.

예수회의 사회사도직은 보이지 않는 가난과 소외를 보이게 드러냅니다. 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예로, 40여 년 전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예수회 난민 봉사 기구 JRS(Jesuit Refugee Service)는 오늘날 56개 국에서 약 80만명의 난민을 직접 돕는 세계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JRS는 보이지 않는 이민자와 난민들을 눈에 띄게 하고, 정착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돕습니다.

예수회 대학은,

학생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경험은, 인종과 문화에 상관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난과 소외의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청년들의 여정에 동참하기

세번째 방향성은,

“희망이 가득한 청년들의 미래 창조 여정에 동참하기”입니다.

예수회는 다양한 청년 운동들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접하고, 사회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며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주요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국제 시민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배우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회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과 함께 시대적 변화를 논하며 세대간 연합을 통해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회 대학은,

청년들이 다양성을 경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체험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과 정의와 우리 삶 안에 계신 하느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제한된 지평을 넘어 자신이 갖고 있던 꿈보다 더 큰 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번째,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해 협력하기

네번째 방향성은,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입니다.

예수회는 이미 50여년 전 제32차 총회(1974)를 통해 사회 정의와 환경의 불균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하였고, 제34차 총회(1995)에서는 개발과 생태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환경은 인류와 예수회원들의 삶과 사명에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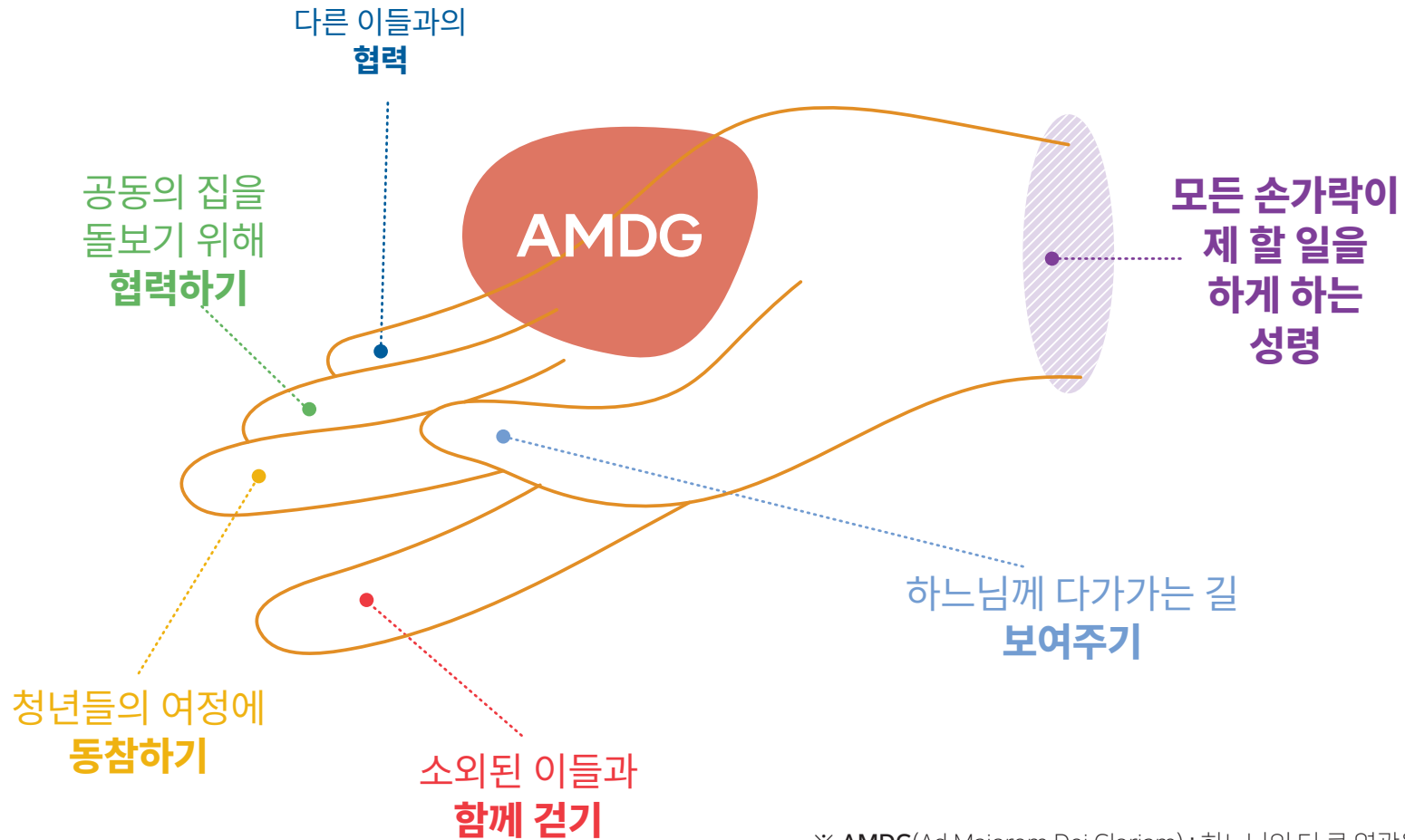
예수회 대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그들이 보고 겪으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공동의 집에 대한 의식을 키워 주고, 매일 새로운 작은 실천을 행하여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보편적 사도적 선택(UAP)”은
한 손에 연결된 다섯 손가락처럼 작용합니다.



※ AMDG(Ad Majorem Dei Gloriam) :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